

# 깔뱅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장흥길 <<< 한국성서학연구소 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올해는 개신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깔뱅(1509-1564년) 탄생 5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500년 전 깔뱅은 당시 중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타락상에 반대하여 신앙개혁을 주도한 손꼽히는 종교개혁자였다. 깔뱅으로 하여금 당시 거대한 ‘공룡’ 과 같은 가톨릭교회에 맞 설 수 있게 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자신의 확고부동한 성경관이였다. 그의 성경관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종교개혁을 위한 깔뱅의 첫 번째 해석학적 신앙과 삶의 원리는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이였다. 그에 의하면, 올바른 성경해석을 판정하는 결정 기준은 당시 가톨릭교회에 편만해 있던 교회의 전통이 아니였다. 오히려 교회에 신앙과 생활의 규범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였다. 깔뱅의 종교개혁에서 밑거름이 되었던, 두 번째 해석학적인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였다. 이 표어가 지닌 의미는 독일 에얼랑엔(Erlangen)의 신약학자 위르겐 롤로프(Jürgen Roloff)가 언급한 것처럼, 성경이 시공(時空)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어떤 체계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성경이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 복음이 언급될 때만 성경이 올바르게 들리며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 칼뱅에 있어서 세 번째 성경해석학적 원리는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scriptura sacra sui ipsius interpres)였다. 이는 성경의 통일성과 명료성에 대한 그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일성 있게 전해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전하는 성경 본문들이 외견상 서로 다르게 보일 경우 그 본문들을 해석할 때, 그 말씀들은 교회의 교리 전승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해석되어야 한다(딤후 3:16 등 참조). 칼뱅은 이런 기본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꾸준히 주해하여 거의 모든 성경 각 권 주석들을 썼으며, 이러한 칼뱅의 성경관은 그로 하여금 당시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전통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 의해 주도된 신앙개혁 운동에서 원동력이 되었다.

칼뱅의 위대함은 그가 단순히 신구약 성경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주석하고 개혁적 성경관으로써 복음적인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았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이는 그가 개혁주의적, 복음적 성경관의 입장에서 교회 개혁뿐만이 아니라 사회 개혁에도 앞장섰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박경수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주최한 제7회 『소망신학포럼』에서 발표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사상-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하(題下)의 논문에 의하면, 칼뱅은 자신이 머물던 제네바 시(市)에서 ‘종합구빈원’ 운영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이 도시의 복지 개선과 증진에 앞장섰고, 일종의 기부 재단인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e: Fund for Poor French Foreigners)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칼뱅은 1554년 7월 1일에 ‘프랑스 기금’을 관리하는 집사들을 선출하기 위한 모임을 자

신의 집에서 열기도 하였다. 또한 깔뱅은 ‘이중집사’ 제도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1541년 『교회법령』에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네 가지 직분을 열거하면서, 그 네 번째 직분으로 ‘집사’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 ‘집사’의 직무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모으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직무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직접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였다. 이를 당시 제네바 시의 구조에 빗대어 말한다면, 전자(前者)는 ‘행정관’의 직무에 해당하였고, 후자(後者)는 ‘구빈원장’의 직무에 견줄 수 있다. 그 외에도 깔뱅은 ‘부와 가난’, ‘이자와 상업’, ‘노동과 임금’ 등 사회의 구체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였다.

위에 언급한바, 깔뱅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철저히 성경적 기초 위에 세우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500년 전 태어난 깔뱅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다시 되새김질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깔뱅과 오늘날 한국 교회와의 관련의미는 무엇인가? 작금의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난 고조나 반(反) 기독교 정서 또는 교회의 대(對) 사회 신인도(信認度) 실추는 차치(且置)하고라도, 교회 안에서 자성(自省)하는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권주의, 교회의 집단이기주의, 교계의 정치화, 교회지도자의 지도력 부재(不在), 교회 의사결정 구조 내의 긴장과 갈등, 교회령화 현상, 교회 구성원 세대의 이상(異狀) 분포 구조, 교회의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 미비, 이단의 횡행(橫行) 등 교회가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散積)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가 깔뱅 탄생 500주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교회가 우리 앞에 쌓여 있

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면, 다시 한 번 갈뱅의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며, 개혁적인 신앙의 원리와 삶을 본받아 한다. 갈뱅이 제시했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scriptura sacra sui ipsius interpres)라는 신앙개혁의 세 가지 큰 성경해석학적인 원리를 다시 가운데 자리로 옮겨 놓고, 제반 삶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1991년 9월 ‘한국성서학연구소’가 설립한 이래로 어언 18년이 지났다. 지난 세월 동안 본 연구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세계 교회를 섬기는 ‘설립 이념’과 개혁신학 전통에 입각한 복음주의적이고 교회적인 성경해석과 성서학 정립이라는 ‘설립 목적’, 그리고 복음주의적이고 교회적이고 실천적인 성경 연구와 성서학 연구라는 ‘설립 목표’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힘써 왔다. 이제 본 연구소가 갈뱅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갈뱅의 개혁 신앙을 본받아 다양한 성경해석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종교 개혁 전통에 입각한 올바른 성경 연구로써 한국 교회를 섬기도록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어 본다.

**:: 장흥길** 성균관대학교(B.C.)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독일 에어랑겐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본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